

청정 국토 지키기 불교계 '앞장'

원전·케이블카 정책에
조계종 등 반대 목소리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소부터 산악 케이블카 사업까지 개발 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정 국토를 지키기 위해 불교계가 나섰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와 영덕 덕흥사(주지 성엄) 등은 8월 31일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 원전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수용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영덕해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 원불교 영덕 교당도 함께 했다.

현재는 영덕은 원전 건설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영덕군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원전 건설에 지역주민들은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영덕해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가 지난 8월 12일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61.7%가 해발전소 유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11일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9월 9일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영덕군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53%가 해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위원장 장명 스님은 인사말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영덕 덕흥사 등은 8월 31일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 원전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수용을 촉구했다.

양양군 오색 케이블카 사업
"민족 靈山 설악 지켜내야"
영덕 원전 놓고 지역 갈등
불교 "주민 투표 수용하라"
지역 난개발... 전국이 몸살

을 통해 "천연 자원과 천혜의 자연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영덕에 원전이 건립될 뻔한 게 우려가 크다"며 "영덕이 핵의 위험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환경위원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덕흥사 주지 성엄 스님도 "핵 관련 사업은 사양사업이며, 공멸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면서 "왜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무리해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청정 영덕을 위해 지역 불교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탈 원전과 에너지 정책 전환 △지역주민 의견 수렴 △영덕 군민이 요구하는 주민투표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영덕군수에게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에 대해서도 불교계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범승)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에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는 8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양양군이 당초 제출한 사업안에 7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승인하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는 국립공원 보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지는 못할지언정 되레 정부가 나서 파괴해도 좋다고

승인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되면 향후 명산 도처에 케이블카 설치가 유행 될 것이고, 그 후유증은 국토는 물론 국민의 의식과 생활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국토환경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족의 영산인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불교계 단체들의 동참도 촉구했다. 연구소는 "불교계 각 단체에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는 일에 모두 함께 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환경위원회도 8월 24일 성명서와 대정부 건의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철회와 정부의 산악관광 활성화대책 폐지를 주장했다.

정부가 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에 대해 조계종 환경위는 "자연공원 등으로 지정된 곳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명산과 명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정기가 어저 온 성지"라면서 "단지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강을 파헤치고, 산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부실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랑의 독서카페' 서 자비심 키워요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과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9월 3일 군장병의 인성함양을 위해 최전방 GOP소초 5곳에 사랑의독서카페를 개설했다. 병영 독서문화확산을 위해 마련된 사랑의독서 카페는 을지부대, 철성부대, 승리부대, 백두산부대, 울곡부대 등에 마련됐다. 기증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3군단장 나상용 중장, 을지부대 사단장 조종철 소장 등이 참석했다.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과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9월 3일 군장병의 인성함양을 위해 최전방 GOP소초 5곳에 사랑의독서카페를 개설했다. 병영 독서문화확산을 위해 마련된 사랑의독서 카페는 을지부대, 철성부대, 승리부대, 백두산부대, 울곡부대 등에 마련됐다. 기증식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3군단장 나상용 중장, 을지부대 사단장 조종철 소장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성보박물관 연합체 탄생

8월 31일 '성보박물관협회' 출범... 31곳 참여

불교중앙박물관장이 회장
문화재 체계적 보존 기대

조계종이 성보 관리기관인 성보박물관의 연합체를 구성했다. 사찰 내 불교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기대된다.

조계종 성보박물관협회는 8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를 열어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을 선출했다.

창립총회에는 불교중앙박물관장 화범 스님과 해인사 성보박물관장

본명 스님 등 40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확정된 회칙에 따르면 성보박물관협회는 종법에 의한 성보박물관을 정회원으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불교 관련 박물관 및 미술관을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전국 35개 성보박물관이 회원으로 등록된다.

협회 회장으로는 불교중앙박물관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되며 임기는 중앙박물관장 임기와 동일하다. 산하 운영위원회는 성보박물관장 중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창립법회에서는 운영위원 후보로 월정사 성보박물관장 원형 스님과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지경 스님, 은해사 성보박물관장 동명 스님 등이 추천됐으며 당사자와의 조율 후 명단이 최종 발표된다.

한편, 성보박물관협회는 그동안 성보박물관간 교류 및 직원 전문교육 등의 사업 진행에 의해 그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특히 2015년 문화재청의 문화재다량소장처 경영상태 비 지원사업을 앞두고 박물관 간의 조율 움직임과 운영관리 체계화로 협회 창설이 가시화됐다.

초대회장 화범 스님은 "향후 중앙과 각 사찰의 성보박물관 간 교류를 통해 역할을 배양하고 성보 전신과 전문인력 양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치적 징계자' 사면 위한 공청회 열린다

조계종 중앙총회, 오는 10월 16일 개최

중헌종법 소위, 9월 1일 결정
중단분규사·대상자 현황 논의
전문 발제자 폭넓게 섭외 예정

조계종 통합중단 출범 이후 정치적 이유로 탈퇴된 스님들을 사면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조계종 중앙총회 중헌개정 및 중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조적, 이하 중헌종법 소위)는 9

월 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정치적 징계자 사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의 일정과 논의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중헌종법 소위는 오는 10월 1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청회 명칭은 '중단화합조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칭)'로 정했으며 중단 원로위원 스님을 비롯해 중앙총회위원,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참가자들을 초청해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통합중단 이후 중단분규의 역사 △중단분규에 따른 징계자 현황과 사면의 필요성 △사면 방법 제정 방안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이에 따른 발제자와 토론자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와 분규 경험 스님들을 참여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논의 사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리는 중헌종법 특위 전체 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중헌종법 소위는 2회에 걸쳐 공청회를 진행하고 특별법 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징계자 사면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

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늦어도 내년 3월 임시총회까지는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징계법 제정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승려법에 포함될 징계 조항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수긍할 수 있는 징계 양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주된 이유이다.

이에 대해 만담 스님은 "승려법은 스님들의 자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야 하지만 징계 내용까지 포함돼 혼란스러움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징계 규정은 단계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 산사, 동아시아서도 독특한 양식"

세계유산등재추진위 4일 제2차 학술회의 개최

"한국 산사의 특징은 중국과 일본과는 성격이 다른 개방형 구조를 띄고 있다. 자연동화된 건물배치에서도 다른 불교국가 사찰과는 다른 양식을 지닌다"

한국의 전통산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기초작업 중 하나인 전통산사 문화유산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전통산사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자승)는 9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차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박종관 건국대 지리학과 교수는 "한국 산사의 자연입지 특성" 발표를 통해 한중일 삼국 사찰을 비교하고 한국사찰의 특징을 밝혔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산사는 산속의 또다른 생명체"라며 "맑은 공기를 마음껏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종교 유무와 상관없이

찾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선사해주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학술회의에서는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의 "한국 산지가람의 형성과 전개" 발표와 통도사·법주사·봉정암·선암사·부석사 등 등재후보 사찰의 불교문화유산과 가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한편,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사찰은 총 7곳으로 추진위는 2017년까지 등재를 위한 연구와 조사, 국내외 학술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유네스코의 현지 실사를 거쳐 2018년 세계유산 등재 심사가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2015년 제30회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2015년 을미년을 맞이하여 제30회 백고좌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명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 처음 열린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지기를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법왕사 백고좌법회는 1995년 처음 시작한 이래 해도 빠짐 없이 매년 1~3회씩 개최하고 있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자들에게 익숙한 법회입니다. 이번 제30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덕 높은 스님들을 두루 초청하여 신행생활에 꼭 필요한 판사사 친, 금구성인의 법문을 듣고 친견하는 귀중한 기회이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중흥: 중심문도회 회주 황승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実相 합창

◆ **법사명단**

회차	날짜	법사스님	약력	회차	날짜	법사스님	약력
1일차	9월 9일(목)	보각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10일차	9월 19일(목)	정원스님	남양주 불성사능엄법학회장
2일차	9월 10일(금)	반산스님	방개사 승가대학장	11일차	9월 20일(금)	관월스님	경산 석산사 주지
3일차	9월 11일(토)	일우스님	대구 성관사 주지	12일차	9월 21일(토)	대주스님	부천 대문사 주지
4일차	9월 12일(토)	해광스님	대전 법화사 주지	13일차	9월 22일(토)	일정스님	화산 유마승가대학장
5일차	9월 13일(토)	실상스님	법왕사 주지	14일차	9월 23일(토)	자광스님	대구 관오사불교사회복지회주
6일차	9월 14일(토)	덕문스님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15일차	9월 24일(토)	해조스님	남산도교 정진중
7일차	9월 15일(토)	주경스님	서산 부석사 주지	16일차	9월 25일(토)	동봉스님	경기 광주 유리굴 주지
8일차	9월 16일(토)	노후스님	조계종 포교국장	17일차 ~ 21일차(9월 25~29일)			추석연휴
9일차	9월 17일(토)	원각스님	원주 성불원장장	22일차	9월 30일(토)	연명스님	제주 천제사 주지

백고좌법회 49재 영가접수 받습니다.

◆ **일시** : 2015년 9월 9일 ~ 12월 17일 (100일간)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
◆ **법회** : 매일 오전 9시 기도, 법문 11시

1일차
9월 9일
특별 법문
보각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2일차
9월 10일
특별 법문
반산스님
방개사 승가대학장

14일차
9월 22일
특별 법문
자광스님
대구 관오사 불교사회복지회주

16일차
9월 24일
특별 법문
동봉스님
경기 광주 유리굴 주지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 1길 2-9번지
T. (053)766-3747 F. (053)767-6095

한결같은 마음 해오름요양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가창 부처님마을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법왕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찬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원 입소를 기다리는 분들은 많은데 복지관 내 요양원의 수용인원이 한계에 차서 더 이상 모실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법왕사는 가장 부처님마을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법왕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가창농원 맞은편 (구)정음식당
전화: 766-2747

◆ **참금** : 한 가족 100만원(2명 이상 새겨드립니다)
◆ **문의** : 주무소 (766-3747, 9088)
◆ **동참계좌**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